

동국대·중앙승가대·위덕대·금강대·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학교 안 묻고 책 빌려 준다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 2월 6일 창립

도서 활용 폭넓혀 면학 지원...전자도서관도 구축

올 3월부터는 금강대에 다니는 학생도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불교관련 도서를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금강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경주 캠퍼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위덕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가 참여하는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이하 불도협)가 2월 6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창립되었다. 불도협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동국대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김중철 팀장은 “불도협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교학 발전과 이를 통한 포교”라며 “이를 위해 각 대학들이 타 대학 학생들에게 열어주었던 빚장을 풀어 신생대학의 도서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대학들은 도서관 운영과 예산활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일단 불도협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관련 도서 상호 대차(貸借) 사업을 추진한다.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금강대 학생이 동국대 도서관의 불교 도서를 대출하고 싶

면 금강대 도서관에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러면 금강대 도서관은 동국대 도서관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고, 우체국 택배로 운송된 도서를 학생에게 전달해 주는 것. 단 운송 시간을 포함해 15일인 대출 기간을 어기면, 연체한 일수만큼 도서관 전체의 대출이 정지되기 때문에 연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자료 공유를 포함해 불도협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분담 수서, 불교학 관련 홈페이지 구축까지 크게 세 가지다. 분담 수서는 각 도서관 별로 분야를 나눠 구비하기 어려운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정된 도서 구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에서 발간된 불교관련 도서와 논문 등 평소 예산부족으로 충분히 구입하지 못했던 자료를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 자료를 제공할 온라인상의 ‘전자 도서관’ 구축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역점을 둘 방침이다. 현재 각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학 자료 검색은 물론이

고, 일제 시대 이후 발간된 잡지나 간행본 등 희귀본의 원문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한도 내에서 불교관련 자료를 최대한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협의회 창립준비위원장 최인숙(동국대 중앙도서관장) 교수는 “불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참여 단체를 사찰 내 도서관, 교양 대학 등 불교관련기관으로 확장할 생각”이라며 자료 공유의 폭을 넓히려는 복안도 제시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news.com

불교학결집대회 도우미 모집

5월 1~2일 대회운영 지원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해주)는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도우미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모집된 도우미는 5월 1, 2일 이틀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리는 결집대회에서 참석자 안내와 대회 운영 등에 참여한다.

신청은 3월 15일까지이며, 이름·소속·성별·주소·이메일 주소·연락처·구사 가능한 외국어를 기입한 신청서를 skbinfo@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02)2260-3128

김해서 금동경패 출토

국내 처음, 고려시대 것 추정



출토된 금동경패 앞면(좌)에 김삿을 입은 신장상이, 뒷면에는 ‘俱舍釋論 第十三卷(구사석론 제13권)’이 새겨져 있다.

경남 김해서 옛 절터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완전한 형태의 금동경패(金銅經牌)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문화재연구원(원장 박동백)은 지난해 김해서 대동면 덕산리 산 74번지 일대를 발굴한 결과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신장명문경패(金銅神將名文經牌, 불경을 넣은 나무 상자 겉에 달아 내용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던 것)’와 금동불상, 소조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금동제 경패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은 “현재 국내에 전해지는 경패는 보물 제175호 송광사 목조·상아 경패 43점과 호암미술관에 기증된 금동 경패 조각 2점이 유일하다”며 “이번에 발견된 금동경패는 원형이 잘 보존돼 있고, 그 출처가 분명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0>



불멸을 바라는 어리석은 소망

최근 우리가 많이 접하는 생명과학 뉴스 중 하나가 인공장기의 개발이다. 돼지 등을 이용한 이종(異種)간의 장기 개발에 대한 뉴스를 보면 마치 수년 내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된다.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생로병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자.

생명체(생명이 깃든 개체)의 생로병사에서 과연 무엇이 생로병사 하는 걸까? 각 개체를 이루고 있는 신체적 자기(自己)이다. 생명현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각각의 개별성은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서 다양한 화염 세계를 이루는 바탕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체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간의 동종(同種) 장기 이식도 아직은 어려워 인체의

식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 한다.

그러면 사람간의 동종(同種) 이식이 라도 지금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날이 곧 올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 그러한 꿈은 면역체계가 계속 고정되어 있다면 가능하지만, 자기(自己)를 규정하는 면역체계는 태어나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한다. 비록 주요 조직합성물의 구성은 변하지 않지만 체내에서 그물망처럼 얽혀진 면역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항상 내안에서 이루어져 그 성격이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과학이 사용하는 분석적 방법으로는 결코 그 총체적 실체를 알기가 쉽지 않다.

또, 설령 동물의 장기를 이식한다 하

과학의 힘에 기대 불멸을 꿈꾸는가?

생로병사의 ‘실체’ 없음을 바로 알아

다양한 조직적합성(MHC)에 대한 면역학적 검사를 통과해야만 실시하게 된다. 몇 년 전 성덕 바우만이라는 재미교포의 골수이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검사를 응했던 것을 상기할 수도 있다. 그 까다로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면밀한 검사를 통해 선정된 사람은 이식을 한 후에도 안정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한다. 자신의 개체성을 유지시키는 최자의 면역 상태를 유지하면서 말이다.

모든 포유동물들도 그들 나름의 고유한 조직적합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종간의 장기 이식이란 개체성뿐만 아니라 종간(種間)의 장벽도 뛰어넘어야 하기에 수년 내에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항간에 이야기 되듯 이종간의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간의 장기 이

도 인간이 몇 년 더 살기 위해 동물을 회생하는 것이나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고 이에 수반되는 일반 감염을 격정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란 결코 우리가 상상하듯 더 나은 삶이 아닐 수도 있다.

풍요로운 우리의 삶이란 결코 우리가 환호하는 불멸의 어리석은 소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생로병사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물 한 방울에도 수많은 생명이 있음을 간파한 부처님께서 늙고 병들어 힘들어하던 제자에게 신통을 부려 이 시대의 과학 지식은 일종의 신통한 것이 아닌가? 그 고통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실체 없음을 보아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한 이야기가 경전에 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 감은사지 느티나무의 편지

“내가 역사경관 기념수 된다면... 기대 커요”

“저는 감은사지 느티나무입니다. 감은사지 3층 석탑(국보 제112호)과 함께 450여 년 동안 감은사 터를 지켜왔죠. 수 백 년 전 감은사지를 뛰어다니던 동네 꼬마 녀석들과, 두 손을 꼭 모으고 탑 돌이를 하던 이름 모를 스님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최근 40여 년 동안에는 감은사 터 여기저기를 들춰보는 사람들이 때문에 좀 시끄럽기도 했고, 당산제를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석탑에만 관심을 가져서 질투 나기도 했지만, 여름이면 제가 만든 그늘 아래서 감은사 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 주는 일이 저의 낙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곳을 찾은 사람들이 제가 ‘감은사지 역사경관 기념수’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월 26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을 마련해 문화재 지역에 있는 수목 가운데 수령이 100년 넘거나 상징성 있는 나무를 ‘역사경관 기념수’로, 이외에는 ‘문화재 경관수’로 정해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는군요. 드디어 사람들이 우리 나무를 단순한 조경수가 아닌 문화재 가치를 지닌 생명 문화재로 인식한 겁니다. 제가 ‘역사경관 기념수’로 지정되면 매년 2번씩 건강검진도 받고, 이름 딱 치려고 해 준다니 500살이 넘어도 이젠 걱정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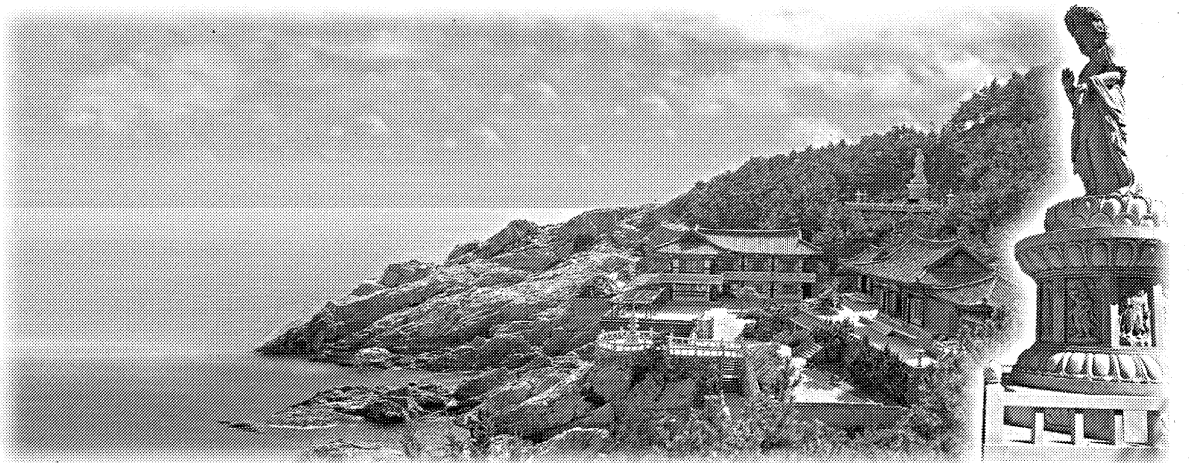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과 느티나무.

저처럼 한 그루만 덩그러니 서 있지 않고, 문화재 지역에 조성된 숲 친구들은 ‘문화재 경관림’으로 지정돼 5년 마다 자라는 나무 종류와 그 분포, 위치를 조사한대요. 그리고 외래 수종이나 너무 빨리 자라는 속성수종을 제거하고, 신발 예방 시설도 설치해서 보존관리 한다는군요. 이런 안심하고 아름다운 문화재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불교성지순례

16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팔 성지순례 15일 (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만원

인도의 3월은 쏘여름으로 12월이나 1월달 보다 순례하기에 훨씬 기우가 좋습니다.

▶일 정 : 음미-델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전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겐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영축산,축림성사)-나란다대학-바이살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 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산)-카투만두 ▶출발일 : 2월12일, 3월4일, 3월23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2월10일, 3월9일 159만원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58만불의 띠보디사원,최대의 불탑유적과 중)-양곤(세다곤대탑,까비에파고다-진신사리친전)-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12일, 4월10일

▶일 정 :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고대불교유적-폴론나루와 불교유적-시가리아 고대궁궐-담블라동굴사원-캔디의 불치사(부처님치사리) *일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황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황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간산 등-상해) 79만원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경만년사 등-성도) 85만원

티베트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3월23일, 4월20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베트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베트일주11일(티베트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라사-포탈라궁-장제-시가체-라제-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4일, 7월6일, 9월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실크로드여행사를 방문하시는 분께 수미산 시간집을 드립니다.